기획

민주화 물결과 지역의 민주주의

아랍 정치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위상
—역사적 고찰 **엄한진**

언어-종족 분절구조와 민주주의
—바누아투와 피지의 사례 비교 **안승국**

동아시아에서의 민주적 지역 금융거버넌스의 구축?
—동아시아 금융협력의 성과와 한계 **전창환**

아랍 정치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위상

역사적 고찰

엄한진
한림대학교

〈논문요약〉

본 논문은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었던 2011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민주화운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랍세계 민주주의 및 민주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특히 역사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비서구사회 또는 저발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정치변동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라는 틀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독립 이후 아랍의 현대정치사에서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사회주의, 아랍민족주의, 이슬람주의와 달리 대중적인 지지를 얻은 이념이기보다는 일부 서구적인 지식인들이나 소수파로서의 자유주의적 정치인들의 이념으로 남아 있었다. 또한 민주화 과정 역시 대다수의 아랍사회에서 국가가 앞장서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아랍사회의 핵심적인 과제 역시 민주주의와 같은 특정 정치체제의 수립보다는 서구사회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속의 극복과 정체성문제의 해결이 더 강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아랍세계의 논의 및 실천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역

사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랍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했고 아랍세계에서 민주주의나 민주화운동이라고 간주할 만한 현상이 존재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아랍에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론과 실천들의 특징을 보면 먼저 서구적인 이념과 제도의 수용과 이슬람이라는 전통적인 가치의 유지라는 두 가지 측면 간의 갈등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민주화의 역사에 있어서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와 '위로부터의 민주화'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으며 진행되어 왔고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사망, 경제개방과 정치개방, 폭동과 같은 대중들의 저항운동, 강제력에 의한 장기집권,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사회운동과 이데올로기에서 민주주의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이어져 온 권위주의, 그중에서도 '강제력에 의한 지배'의 극복이 아랍세계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2000년대 들어 간헐적으로 나타났고 2011년 아랍 전역으로 확대된 '아랍의 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민주화운동은 기성 체제에 저항하는 아랍의 사회운동과 대중의 정치적 실천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주요어:** 민주주의, 민주화, 아랍, 북아프리카, 중동

1. 서론

본 논문은 '아랍의 봄(Arab spring)'이라고 불리었던 2011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민주화운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랍세계 민주주의 및 민주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특히 역사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종합적이고 역사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것은 정치 및 이데올로기 영역에서 아랍세계가 지닌 특수성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비서구사회 또는 저발전국 및 개발도상국에서의 정치변동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라는 틀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독립 이후 아랍의 현대정치사에서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사회주의, 아랍민족주의, 이슬람주의와 달리 대중적인 지지를 얻은 이념이기보다는 일부 서구적인 지식인들이나 소수파로서의 자유주의적 정치인들의 이념으로 남아 있었다. 또한 민주화 과정 역시 대다수의 아랍사회에서 국가가 앞장서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아랍사회의 핵심적인 과제 역시 민주주의와 같은 특정 정치체제의 수립보다는 서구사회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속의 극복과 정체성문제의 해결이 더 강조되었다. 이슬람주의가 대중적 지지를 얻은 것도 문제의식이 이렇게 총체적이고 문명론적인 성격을 띠었다는 데 힘입은 바 크다. 물론 이러한 특수성은 이 지역이 지닌 사회적, 경제적 특수성보다는 ‘가장 가까운 타자’로서 서구와 맺어온 특수한 관계에 기인한 바 크다. 대중의 자생적인 폭동이나 테러리즘이 사회운동 및 민주화운동에서 다른 사회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민주주의와 관련된 아랍세계의 양상은 단순히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점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 인식에 대한 보완을 요구한다는 보편적 함의를 지닌다. 아랍 이외의 지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정치변동에 있어서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않았던 사례가 존재한다거나 민주화가 정권의 연장이나 대외종속의 심화와 연관되기도 하는 것은 아랍의 경험이 ‘아랍 예외주의’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징표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는 의의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아랍의 사례는 비서구사회에 적용되어 온 단선적 이행론이나 규범적인 근대화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1920년대 식민지배하에서의 근대국가 형성, 좌파 민중주의, 권위주의 정권, 위로부터의 민주화, 포스트 (형식적) 민주화 시기의 억압의 강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등의 국면을 거쳐 온 아랍 근현대사의 경험은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를 이해하는데도 유용한 교훈을 제공해줄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아랍세계의 논의 및 실천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랍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했고 아랍세계에서 민주주의나 민주화 운동이라고 간주할 만한 현상이 존재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2절에서는 아랍세계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외부의 시각과 아랍세계 내부의 인식을 살펴본다. 후자의 경우에는 특히 이슬람개혁주의, 이슬람주의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3절에서는 독립 이후 아랍세계에서 나타난 민주화를 위한 시도들을 '위로부터의 민주화'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4절에서는 아랍세계에서 민주주의 및 민주화가 지닌 위상과 특징을 도출해본다.

2. 아랍세계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1) 민주주의의 주변적 지위

오스만 제국 말기 서구화, 근대화가 시도되던 시기부터 영국, 프랑스에 의한 식민지배를 거쳐 독립에 이르는 시기까지 민주주의는 주로 사상의 측면에서만 존재했고 그마저도 서구 제국주의 및 서구문명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 차원에서 단편적으로만 다루어졌다. 또한 근대 초기 주요 아랍 사상은 근대화론, 이슬람개혁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 등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은 미미했다. 독립 이후 아랍국가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적, 민중주의적 성격의 정권이 집권한 지역, 서구지향적인 권위주의 정권, 친서구적인 왕조 등 다양한 형태를 띠었다. 정치체제는 상이했지만 공히 권위주의적 성격을 띠었고 대부분 장기집권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 정권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도 민주주의 담론은

헤게모니를 가지지 못했다. 적어도 2011년 '아랍의 봄'이 분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주주의자들' 또는 '민주세력'이라는 표현이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 다수를 아우르는 용어는 아니었다. 많은 경우 시민사회, 인권, 민주주의 등 서구적인 관념에 우호적인 일부 집단에 국한된 흐름이었던 것이다.

민주주의의 주변적 지위가 담론상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아랍세계의 정치에서 정당이나 의회 등 민주주의 제도는 여러 요소들 중 하나일 뿐이다. 정치는 군, 경찰, 행정부, 의회 등 제도화된 세력과 함께 정권과 연계되어 사회 각 영역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들, 민중의 요구를 유토피아적인 방식으로 대변하고 있는 이슬람주의자들, 지하활동을 하는 좌파세력과 같이 제도권 밖에서 활동하거나 비공식적으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 그리고 아랍세계의 특징 중 하나인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시민들의 폭동 등 다양한 세력 및 양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의 경우 '정치' 개념은 '제도 정치'에 국한하기보다 시민사회의 정치를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랍세계의 정치적 특징으로 권위주의와 함께 정당의 저발전이 거론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선거와 다당제를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정당은 정권의 꼭두각시이며 정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정치세력은 제도권 밖이나 비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를 고려할 때 아랍 정치는 서구사회와 달리 정당이나 민주주의 제도의 상황만으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시민사회'라는 개념으로 지칭된 시민사회단체들이 활성화되어 정권에 비판적인 진영에서 '민주세력'의 위상 역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아랍세계에서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거나 적절한 정치체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게 존재했었다. 오리엔탈리즘적인 외부세계의 인식에서 비롯된 이러한 사고는 자신들 역시 오리엔탈

리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아랍인들 사이에서도 폭넓게 공유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아랍세계의 정치 및 이데올로기의 역사, 그리고 그 속에서 민주주의가 차지했던 위상을 고려할 때 최근에 나타난 '아랍의 봄' 현상은 단순히 지구상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후진적인 지역에서 일어난 정치 발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평가 역시 뒤에서 살펴볼 것처럼 '아랍의 봄'이라 불리었던 과거 몇 차례의 경험이 가져온 결과를 고려하면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아랍 정치 및 아랍 민주주의에 대한 외부의 시각

이슬람 및 이슬람세계와 관련해 많이 언급되는 서구적 가치, 제도 등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정교분리주의, 민주주의, 인권 등이 이슬람과 서구를 대비시키는 데 사용되는 주된 요소일 것이다. 민주주의는 중동 및 아랍 정권에 대한 비판의 수단으로 또는 민주주의를 수용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하는 이슬람문화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주로 언급되어왔다. 인권 개념은 특히 이슬람권에서의 여성의 열악한 지위를 비판하는 데 사용되었다. 정교분리주의는 한편으로는 종교의 영향력이 큰 이슬람권 국가에서의 정치를 비판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영역에서의 히잡 착용 등 무슬림 여성의 지위를 비판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무슬림 사회에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불가능하고, 신이 지배하는 사회이므로 인민주권에 입각한 국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인식이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예외적인 아랍사회는 외부의 개입을 통해서라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 되었다. 정교분리 문제는 내정 간섭이나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효과적인 명분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교분리에 관한 담론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이슬람세계, 특히 그중에서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온 아랍세계에 대한 논의에서 민주주의는 서구적인 현상이며 이슬람사회에는 낯선

외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었다. 실제로 '중동민주화'와 같은 국제정치의 논리는 아랍세계에 대한 서구 또는 국제사회 개입의 주된 명분이었다. 따라서 아랍 또는 이슬람 세계에서 민주주의는 서구에서 수입되어야 하며 이 과정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세계가 이를 강요할 수 있다고 간주되어 왔다. 물론 실제 민주주의와 관련된 외세의 역할은 이들이 표방해온 것과 정반대인 측면도 있다. 최근 미국의 경우만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부터 강대국은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데 장애가 되는 '민주주의'가 아랍세계에 정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이다.

다른 한편 최근 '아랍의 봄'을 다루는 연구가 봇물을 이루기 전까지 아랍사회의 정치사회적 측면을 다루는 연구들은 정치적 이슬람이나 권위주의 정권 및 문화 등에 관한 것이 대종을 이루었다. '이슬람의 유전자'라는 개념을 통해 중동사회의 정치적 예외성을 논하는 버나드 루이스(Lewis 2001), '신들의 복수'라는 용어를 유행시킨 질 케펠(Kepel 1994), '정치적 이슬람의 실패'와 '포스트이슬람주의' 단계를 논한 올리비에 후와(Roy 1998)와 같은 연구자들을 이 분야의 대표자로 만든 것도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에 부합한 연구가 결합된 것이었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이슬람 및 이슬람 세계의 특수성에 초점을 둔, 아랍어를 적절히 배합한 다소 신비적인 분위기를 지닌 것이었다. 오리엔탈리즘, 본질주의, 문화주의의 혐의를 덜 받는 연구자들 역시 아랍 정치에 대한 연구는 노동운동, NGO, 학생운동 등 급진적인 비종교적 아랍 사회운동의 주체보다는 이슬람 진영에 초점을 맞추었고 '이슬람과 민주주의'(Esposito 1985), '이슬람과 근대성'(Al-Azmeh 1993; Laroui 1987), '이슬람과 정교분리주의' 등의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후세인(Hussein 1969), 사이드(Said 1972), 갈리소(Gallissot 1987)와 같은 극소수의 학자들만이 아랍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동운동, 계급문제 등 급진적인 전통을 다루었다. 민주주의의 역사나 아랍 민주주의의 특성에 관한 조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만큼 아랍 민족주의 시대가 종식된 이후 학계나 외부세계

의 관심은 이슬람 등 문화적 측면에 집중되었던 것이다.[1)]

2011년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되어 전 아랍세계로 확산된 민주화운동은 아랍세계가 민주주의와 맺어 온 이상과 같은 외재적, 국제정치적 관계, 그리고 이 주제에 관한 오리엔탈리즘적 인식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하드, 샤리아, 히잡, 자살폭탄테러 등 시대착오적이거나 극단적인 상징에서 SNS, 민주주의, 자유와 같은 보편적이고 현대적인 상징으로의 변화가 보여주듯이 이제 영원히 예외성('아랍예외주의', '이슬람예외주의')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지역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보편적인 인류사에 편입되고 있다는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3) 민주주의에 대한 아랍세계 내부의 인식

외부세계의 평가와 달리 민주주의나 근대성에 대한 아랍인들의 인식은 단순히 적대적이지만은 않았다. 먼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의 근대 초기 구 오스만제국의 상황을 보면 제국의 황실과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나기도 했다. 서구사회의 발전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근대적인 헌법과 의회제도 등 민주주의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다수가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비서구사회에서는 유일하게 서구식 정치제도를 도입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긴 러일전쟁은 이러한 생각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

---

1) 보자르슬란은 지난 수십 년간 중동 또는 아랍지역의 정치현상 연구에 적용된 4가지 주요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한다. 첫번째 패러다임은 이 지역을 이 지역 고유의 역사성을 고려하지 않고 보편적인 '근대주의적' 길에 입각해 설명하는 것이다. 두번째 패러다임은 이 지역이 지닌 복합성을 무시하고 이슬람적인 측면만 강조한다. 세번째 패러다임은 이 지역 고유의 권력구조 및 정치문화로만 현실을 설명한다. 네번째는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강하게 지녀온 도시성을 무시하고 부족적인 측면만으로 이 지역을 설명한다. 그는 실제 현실의 복합성과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이 네 가지 주된 접근방식을 극복하는 것이 중동의 정치사회학이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한다(Bozarslan 2011).

서 의회와 헌법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다. 1908년 오스만 헌법의 제정, 1905~1911년 근대적인 헌법 제정을 요구한 페르시아 혁명, 양차 대전 사이에 일부 아랍국가에서 도입된 내각제 등은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선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물론 2차 대전 이후 의회제도에 대한 실망이 커지기는 했다. 즉 의회제도가 소수 지배세력과 부자들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제도라는 인식이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세력을 확대했던 측면도 있다(Keddie 2002, 48-49).

외부세계에서 생각하는 만큼 절대적이지는 않았지만 아랍의 지적 세계에서 이슬람의 비중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아랍적 인식에 있어서도 이슬람 진영의 시각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대의제, 선거, 인민주권 등과 같은 민주주의 원리 및 제도에 대한 이슬람세계 종교계, 학계, 신자들의 입장은 다른 주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하다. 신을 유일한 주권자로 간주하는 살라피즘[2)]에서처럼 이슬람원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슬람이 인권, 인간의 자율성을 용인한다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장려한다는 등의 경전해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에 우호적인 입장이 있다. 최근 이슬람을 주된 조직적, 사상적 토대로 삼고 있는 정치집단이 선거제도를 통해 대거 의회에 진출하거나 심지어 터키의 경우처럼 집권에 성공하는 것은 이슬람권에 후자의 입장이 폭넓게 존재한다는 근거일 것이다.

수니파의 예를 보면 코란의 해석을 둘러싸고 네 개의 신학적 경향이 형성되었다. 네 개의 학파는 코란의 구절을 문자 그대로 따르려는 정도에 따라 구분되었고 지역에 따라 특정 학파가 우세하였다. 즉 북아프리

---

2) 일반적으로 아랍의 이슬람주의를 구분하는 방식은 개혁적인 이슬람주의와 살라피즘적 이슬람주의로 구분하는 것이다. 살라피즘은 영적 지도자가 만든 조직들을 중심으로 한 신비주의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살라프는 아랍어로 '조상'을 의미한다. 살라피즘 내부에는 매우 다양한 흐름이 존재하지만 공히 마호메트 시대의 모습을 다시 구현하고 코란의 문자주의적 해석을 주창한다.

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말리키 학파, 터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에서는 하나피 학파, 이집트,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에서는 샤피이 학파,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만 국가들에서는 가장 엄격하게 문자주의적 해석을 적용하는 한발리 학파가 우세하였다. 이 중 한발리 학파를 제외하면 다른 학파들은 민주주의를 인정하고 이 근대적 정치원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이슬람에서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하였다.

19세기 말 아랍세계에 등장했던 이슬람개혁주의자들, 즉 알제리의 벤 바디스(Abdelhamid Ben badis), 이집트의 알 아프가니(Jamal al-Din al-Afghani)와 같은 학자들은 이슬람의 갱신을 통해 이슬람을 근대성과 화해시키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모습을 회복하려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특히 이성을 강조하고 군주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슬람의 전통(choura, 슈라)을 근거로 삼았다. 오랫동안 마호메트에 대한 모방(taqlid, 타클리드)에만 의존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노력(jihad, 지하드)'을 통해 이슬람법에 대해 '기성학파로부터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는 것'(ijtihad, 이즈티하드)의 전통을 장려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슬람개혁주의자들은 당시 오스만 제국이 겪고 있던 지적 혼돈과 서구 열강에 의한 지배를 '이슬람세계의 후진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서구에 비해 뒤쳐져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후진성(backwardness)'이라는 용어는 당시 오스만 제국, 그리고 특히 제국 내 아랍지역의 상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용어가 되었고 '후진성'의 강조는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을 아랍사상에 도입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이슬람 진영에서의 개혁운동은 '나흐다(Nahda,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오스만 제국의 근대화 운동을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나흐다'라는 용어는 본래 '권력과 힘'을 의미하는 오래된 아랍어이다. 주로 서구 열강과의 접촉과 오스만 제국 황실 및 이집트, 튀니지 지방정부가 시도했던 개혁이 있었던 시기에 이전까지 침체되었던 아랍문화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대략 18세기 말에서 1950년대까지가 나흐다

의 시대로 간주된다. '나흐다'라는 용어가 특히 르네상스나 리소르지멘토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이전 오스만제국 시절이 아랍인들의 입장에서는 암흑기였다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앨버트 후라니가 그의 주저(Hourani 1983)에서 이 시기를 '자유주의 시대(the liveral age)'로 규정했던 것도 유사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가 사상적인 측면에서 아랍의 '자유주의 시대'라고 부른 시기는 1798년에서 1939년까지인데 이는 나폴레옹의 이집트 정벌에서 1차 대전 발발까지의 기간이다. 이러한 시기구분은 나폴레옹의 이집트 정벌이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이 발전하는 계기임과 동시에 오스만 세계가 서구의 사상과 제도에 매료되는 시기이기도 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아랍의 전통적인 언어, 문화, 역사 등을 복원시키고 아랍 및 이슬람 문화를 정치에 연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시기 유럽 대륙에 등장했던 낭만주의와 유사하기도 하다. 나흐다를 통해 시도되었던 것을 보면 우선 '해방'을 들 수 있다. 사상과 언어의 해방, 신민에서 시민으로의 변형, 오스만 지배로부터 '아랍민족'의 해방, 여성해방 등이 시도되었다. 이와 함께 '민족'이라는 관념의 부상, 이상적인 시대로서의 과거의 재발견, 세대갈등,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 입헌주의 정치체제의 시도 등이 나타났다. 나흐다에는 해방이 과거로의 회귀라는 반동과, 그리고 정체성의 추구가 서구화와 혼재되어 있었고 모순적인 지향 간의 갈등이 존재했다.

나흐다의 학자들 중 보다 세속적인 성격의 사상을 주창했던 이들의 상당수는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수용하였는데 이들에게서도 서구 제도의 수용이 이슬람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인 학자 타흐타위(Rifa'el-Tahtawi)는 이후 '아랍 자유주의의 아버지'로 불리어졌는데 그의 사상의 핵심은 '문명'과 '민족(또는 국가, nation)'이라는 두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에게 자유는 서구사회의 핵심적인 운영 원리인데 이슬람에서의 정의나 형평성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겨졌다. 헤레딘(Kheredine) 장군은 튀니지 판 탄지마트를 시도한 장본인인데 그는 '외래

문화의 모방'에서 당시 튀니지 및 오스만 제국이 겪고 있던 문제의 해결책을 찾았다. 그에게 모방, 즉 이슬람세계 이외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 피조물들을 위해 쓰이기만 한다면 이슬람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아랍세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자유' 개념에 대한 해석이었다. 이에 대한 해석에 따라 개혁에 대한 견해가 나뉘어졌다. 그러나 점차 경쟁적인 자본주의가 아랍세계에 강요되고 식민화과정이 폭력성을 띠며 전개되자 서구에서 유래한 '자유' 개념에 대한 의구심을 낳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받아들이려는 입장이 강해졌다.

1980년대부터 중동 또는 아랍세계의 가장 강력한 사회운동 세력으로 자리잡아온 이슬람주의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예상할 수 있듯이 세속적인 정치세력이나 사회운동세력과 달리 이슬람주의자들의 정치관에 있어서 민주주의 등 서구적, 또는 보편적 이념은 핵심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또한 근대 서구문명 전반에 대한 평가의 한 부분으로만 다루어졌다. 민주주의는 대부분 자유, 인권, 정교분리주의 등과 함께 언급된다. 이와 연관된 또 다른 특징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인 제도나 문화가 아니라 사상의 측면에 초점이 두어진다는 점이다.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나 민주적인 조직문화보다는 '절대적 주권자로서의 신이라는 관념과 인민주권이 모순인가'라는 전통적인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신학적 성격이 강한 이슬람주의자들의 민주주의 논의에는 거부와 수용의 상이한 경향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실용적인 접근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슬람주의자들이 민주주의는 보편적인 정치체제로서가 아니라 제국주의 서구가 비서구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장치의 하나로 간주하면서도 위로부터 추진된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에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랍의 민주화가 대중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측면보다는 과거에 비해 다양한 정치세력을 정치적 장에 수용하는 '정치개방'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이슬람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정치개방은 서구 민주주의에 대

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슬람주의가 20세기 후반 독립 이후에 등장한 다양한 종교운동을 통칭한다는 점에서 그 내부에 세속적인 정치 및 민주주의 개념에 관한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경전의 문자주의적 해석을 통해 정치에 관한 입장을 제시하는 세력은 수적으로는 소수이지만 외부세계에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 흐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의 구 지도자 사이드 꾸뜨브(Sayyid Qutb)는 사회조직 및 정치체제는 이슬람법이 제시하는 처방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Bergesen 2007). 이러한 입장은 '코란은 우리의 헌법'이라는 일부 이슬람주의자들의 구호에서 잘 나타나 있다. 이 입장은 '황금시대', '이상사회'로 간주되는 초기 이슬람으로의 회귀라는 이상을 내포하고 있다.

무슬림형제단과 더불어 이슬람주의의 양대 산맥을 형성했던 남아시아 지역의 이슬람 지도자이자 이 지역의 대표적인 이슬람 부흥운동 단체인 자마아티 이슬라미(Jamaat-i-Islami)의 설립자인 마우두디(Abu al-Allah al-Maududi) 역시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 마우두디에 따르면 이슬람 정치체제는 유일신사상(Tawhid), 예언자 마호메트에 대한 믿음(Risalat), 칼리파 체제라는 세 가지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슬람이 특히 강조하는 절대적인 신의 주권이라는 관념이 인민주권과 모순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이슬람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슬람이 세속적인 서구 민주주의와 대척점에 있다고 간주한다. 그렇지만 이슬람과 민주주의의 공존불가능성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마우두디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신정민주주의(theo-democracy)'를 제시하였다. 이 정치체제에서 무슬림들은 신의 절대적인 주권에 종속되긴 하지만 제한적인 인민주권을 부여받는다. 그는 이 정치체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이슬람법에 대해 건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모든 무슬림들은 필요할 경우 신이 제정한 법을 해석할 권리가 부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슬람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누구도, 심지어 무슬림공동체 전체도 신의 명령에 변화를 가할 수는 없다(Esposito & Voll 1996, 23-24).

외부세계는 주로 민주주의를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근본주의자들의 극단적인 반응에 관심을 가지지만 이슬람과 민주주의 관계에 대해 보다 다면적이고 진지하게 검토하는 세력도 존재한다. '이슬람적 민주주의자', '이슬람적 인권운동가'와 같은 '새로운 개혁주의자들'은 이슬람의 입장에서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Milton-Edwards 2006, 176). 예를 들어 엘 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이슬람에 적합한 정치체제라는 시각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만이 소유하고 있는 특별한 가치를 표현해주며 동시에 성직자들보다는 일반 민중의 손에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그 누구도 신처럼 인간 위에 군림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El Fadl 2004, 36). 실제 1980년대 튀니지의 대표적인 이슬람주의 단체였던 엔 나다(En Nahda)를 비롯해 상당수의, 특히 주류 이슬람 정치세력이 정치적 다원주의, 민주주의, 정당정치, 선거 등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자신들 역시 제한적이나마 민주화 과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있는 정치세력의 지위를 획득하기도 하였다.

아랍의 봄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슬람주의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정권의 안정, 민주화의 저지, 근대화의 저지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2011년 '아랍의 봄'에서의 이슬람 세력의 부재 역시 그리 놀라운 현상은 아니었다. 1980년대 이후 전개된 이슬람주의자들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재이슬람화는 국가의 위로부터의 재이슬람화와 결합하면서 사회통합을 강화하면서 정권과 체제의 지속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심지어 국가와 이슬람주의 양자 구도의 정치질서, 그리고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한 투쟁을 계기로 이슬람주의는 역설적으로 정권의 안정에 기여했던 것이다.[3] 아랍 권위주의 정권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당

성과 통합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주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이슬람주의에 대한 투쟁이었다. 알제리, 튀니지, 이집트에서 집권세력에게 가장 위협적인 적은 이슬람주의자들이었다. 그런데 이슬람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쟁은 정권 자신을 이슬람주의자들과 대척점에 두면서 근대적이고 온건한 세력, 심지어 자유주의 세력으로 홍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당연히 이슬람주의는 극단적이고 반근대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세력으로 규정되었다. 이렇게 이슬람주의를 주된 적으로 삼고 이슬람주의에 대한 투쟁을 주된 정치적 의제로 설정한 것은 권위주의 정권에게 효과적인 정치적 수단이었던 것이다. 미국이 적어도 표면적으로 이슬람주의자들을 주된 적으로 상정하게 된 것 역시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러한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아랍세계와 인근지역이 이슬람주의로만 표상되는지에 대한 한 원인을 발견할 수 있다(Ferrié 2012, 18-25).

3. 아랍세계 민주주의의 역사

최근 아랍세계가 겪고 있는 민주화 과정이 전례 없는 초유의 것이라거나 더 극단적으로는 정보화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등의 일반적 인식은 아랍 현대정치사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다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

3) 일반적으로 이슬람주의의 사회관은 서구 등 외부세계와의 문화적, 정치적 관계에서 아랍세계가 직면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대안 역시 반외세, 반서구문명, 전통으로의 회귀와 같은 요인들을 강조한다. 제3세계 민주화운동이 민족적, 민중적, 민주적 요인들을 다양한 정도로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슬람주의는 반외세적 측면이 강한 반면 반독재, 민주적, 민중적 측면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독재정권을 대상으로 투쟁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정치체제가 민주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또한 계급적인 면에서도 조직화된 노동계급이나 사회주의와는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를 보여왔다.

물론 이번 '아랍의 봄'은 아랍민족주의 시대 이후 최초로 폭동이 아닌 정치적인 대중시위가 나타났다거나 정권교체를 내건 집단적인 행동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는 다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아랍세계에 민주주의 사상과 실천이 완전히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가깝게는 1980년대 북아프리카 아랍 국가들에서 발생한 '빵 폭동', 1990년대 위로부터의 정치개방과 그에 이어진 시민사회의 부상, 2000년대 아랍 각지에서 적지 않게 나타난 반정부시위를 고려해야 한다. 보다 멀게는 19세기 말 나흐다 운동에서 1950~1960년대 사회주의적 성향의 아랍민족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미와 양태로 존재해왔다. 오래전부터 민주주의는 보편사로의 통로로 칭송되거나 또는 제국주의나 불신자들의 무기로 거부되는 등 아랍세계 사회운동과 이데올로기의 한 부분으로 존재해온 것이다. 이 장에서는 아랍세계가 경험한 민주화의 사례를 '위로부터의 민주화'와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라는 두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물론 이 두 과정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전개되어 왔다. 다음에서는 그에 앞서 아랍 근현대 정치사의 주요 단계를 민주주의와 관련해 살펴본다.

1) 현대 아랍 정치사의 시기구분

개략적으로 보면 먼저 오스만제국의 쇠퇴가 제국에 속한 지역 엘리트들의 급속한 서구화 과정을 동반하였다. 식민화를 겪지 않은 터키와 이란에서 국가에 의해 추진된 근대적인 개혁은 서구화 과정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그에 뒤이어 나타난 좌파의 시대는 바로 이전 시대를 서구적이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체제라고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다. 이때부터 민주주의는 진보의 상징이 아니었고 주류 담론은 더더욱 아니었다. 1978년 아프간 전쟁과 1979년 이란혁명으로 막을 여는 이슬람주의 시대에 이슬람과 민주주의 관계는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슬람주의자 자신들

은 주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지만 온건 이슬람 세력이나 외부 세력에 의해 양자간의 화해 시도가 있었다. 다음 시기에는 권위주의 정권들이 통치전략으로 민주주의 담론을 활용하고 미국 등 외부세계가 바로 이 '민주주의 증진' 전략을 통해 아랍세계에의 개입을 확대하면서 아랍 민주주의, 중동 민주주의 개념이 주된 정치 담론이 되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아랍의 봄'이 나타났다.

아랍 정치사 전반에 관한 시기구분의 예를 살펴보자. 근대 이후 아랍 및 중동의 경우 이전 시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사건이나 두 시기 간의 급격한 내용상의 변화 등이 시기구분의 기준이 되어 왔다. 예를 들어 보자르슬란(Bozarslan 2011)은 비중 있는 사건을 중심으로 아랍 및 비아랍을 포함하는 중동의 근대사를 세 단계로 시기구분한다.

첫 번째 시기는 오스만 제국의 해체와 근대국가 형성기이다. 이 시기는 독립적인 근대국가 형성과 위임통치라는 이름의 식민화를 통한 근대국가 형성이라는 두 가지 양상을 띠었다. 후자는 인위적인 영토 분할을 통한 것으로 이 분할에 입각해 작은 국가들이 자리를 잡아나갔던 것이다. 이후 탈식민화 과정이 이렇게 분할된 국가 차원의 독립이라는 형태를 띠었는데(이라크는 1932년, 레바논은 1943년, 시리아와 요르단은 1946년에 독립) 이 신생 국가들은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아랍 전체의 통합을 이상으로 제시한 아랍주의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두 번째 시기는 1948년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국가가 창설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 시기는 탈식민화와 함께 권력을 잡은 권력과 이들이 표방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급속한 약화와 혁명적인 새로운 엘리트의 부상이라는 양상을 띠게 된다. 개별 국가 차원의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는 탈식민화 이후에도 자신들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한 서구의 함정으로 여겨졌다. 민주주의는 명분일 뿐 아랍 세계를 분열시킴으로써 약화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태도는 보다 최근 영국, 프랑스를 대신해 중동의 제국주의 세력을 대표하게 된 미국이 주창하는 '민주주의

증진' 전략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오스만 제국에 뿌리를 두고 귀족적인 성격의 구 엘리트를 대신해 등장한 새로운 엘리트들이 이집트(1952), 시리아(1949, 1963, 1966), 이라크(1958, 1963, 1966), 리비아(1969)에서 유사한 시기에 일어난 혁명적인 쿠데타의 주역이 된다. 이스라엘의 탄생, 그리고 알제리 등 북아프리카 3국의 독립(1956~1962), 수에즈 전쟁에서 이집트의 정치적 승리(1956)로 시작된 두 번째 시기는 아랍 정권들 중 상당수가 근대 중동역사에서 유일하게 정당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아랍 현대사에서 예외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기는 1979년에서 최소한 2011년 '아랍의 봄'이라는 또 다른 비중 있는 사건이 있기 직전까지의 기간이다. 이란 혁명을 비롯해 비중있는 사건이 집중된 1979년을 분기점으로 좌파의 시대와 이슬람주의 시대로 나뉘어질 수 있다. 즉 이집트에 의한 이스라엘의 인정,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그리고 이란혁명은 다양한 지역에서 공히 이슬람주의의 부상을 동반했던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는 수사적인 차원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피억압민족, 계급투쟁, 제국주의와 같은 용어들이 퇴진하고 지하드, 샤리아와 같은 이슬람 관련 용어들이 정치적 담론이나 대중의 의식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그레슈는 보다 직접적으로 민주화를 중심으로 아랍정치사에 대한 시기구분을 제시한다(Gresh 2011). "조국의 아들, 딸들이여, 영광의 날이 도래했다." 프랑스대혁명 기념일인 7월 14일 아침 주민들은 프랑스 혁명의 노래 '라 마르세이유'가 울려퍼지는 라디오 소리에 잠을 깼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공화국 만세, 왕을 처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국왕과 그 가족 일부가 이미 처형되었음을 몰랐다. 이것은 1958년 바그다드의 모습이다. 군이 권력을 장악하였고 일반적안 군사쿠데타와 달리 쿠데타 세력은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1차 대전 종전 직후 영국 제국주의 세력이 옹립한 친서방 왕정에 대한 반감의 골이 깊었던 것이다. 1958년 이라크 혁명은 193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온 민족해방운

동의 정점을 이루는 사건이었다. 이 혁명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혁명의 물결을 몰고 왔고 1967년 6일 전쟁에서의 아랍군이 패배할 때까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었다. 1967년에 시작된 두 번째 시기는 수차례의 군사쿠데타와 아랍세계의 깊은 정치적 침체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는 2011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으로 혁명의 물결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

2) 위로부터의 민주화

이제 1980, 1990년대 경제개방이라는 맥락에서 위로부터 도입된 형식적 민주화 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독립 후 민족주의적, 사회주의적 체제(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알제리, 튀니지 등) 또는 친서방 군주제(아라비아 반도의 국가들, 모로코, 요르단 등) 형태를 띠고 있던 아랍국가들의 대부분은 1980년대 들어 친서방화, 정치적, 경제적 개방화 노선을 따르게 된다. 일반적 인식과 달리 아랍의 대다수 정권들이 장수를 누리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은 1980년대에 아랍세계 전반에 걸쳐 나타난 일련의 변화, 즉 경제개방과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 그리고 이슬람의 정치도구화에 크게 기인하는 것이다. 1980,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슬람세계의 많은 정권들이 제한적인 정치개방(political openings)을 시도하였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선거를 실시하고 최소한 형식적으로라도 다당제를 채택하게 된다. 또한 국제사회가 주창하는 인권을 옹호한다고 표방하고 외국의 국가 기구나 비정부단체가 주도하는 반부패운동이나 민주주의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지하는 변화를 보이게 된다(Mandaville 2007, 103).

아랍 정치를 얘기할 때 민주화와 함께 정치적 자유화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이 두 개념을 구분하는 이유는 민주화를 동반하지 않는 정치적 자유화, 정치적 장의 개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아랍사회에

서 진행된 민주화는 대중의 정치사회적 권리를 신장하는 측면보다는 이전에 비해 다양한 정치세력을 정치적 장에 수용하는 '정치개방'의 성격이 강했다.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걸쳐 이집트와 튀니지에서 진행된 정치적, 경제적 개방정책(Infitah, open door)은 소련과 동구의 개혁 및 개방 정책의 선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호는 개방되었지만 이에 접근할 권리는 정권이 부여하는 것이었다(Milton-Edwards 2006, 165-168). 경제개방 역시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철회하는 것이었지만 국가는 국영기업, 공기업 등 공적 영역을 직접 통제하였고 사기업 역시 국가와의 협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Zubaida 1992, 8). 유사한 정치개방을 경험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도 정치에의 참여기회는 이슬람법을 근거로 통치하는 정권에 의해 결정되었다. 1979년 이후 이 나라에서는 대선, 총선 등 수십 번의 선거가 있었고 매번 높은 수준의 선거참여율을 보였다. 에흐테샤미(Ehteshami)는 '충성서약민주주의(fledging democracy)'라는 용어로 정권의 지배를 정당화해주는 기제로서의 민주주의 제도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의 민주화운동은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개방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개방에서 민주화로의 이행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1991년부터 동네 단위에서 설립되기 시작한 튀니지의 '주민위원회(les comités de quartier)'는 정치적, 사회적 개방이 지닌 양면성을 잘 보여준다. 이 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지역이 정권이 유지되게 하는 데 적극 참여하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비판적인 움직임을 차단하고 새로운 규범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시민'의 이름으로 행해졌다. 그러나 이렇게 권력의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위원회는 민주주의의 학습장이 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1987년 11월 7일 벤 알리의 권력 장악 후 3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튀니지에서는 중앙권력이 강하게 통제하는 '주민위원회'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위원회 설립의 주된 사회적 배경은 이슬람주의와 정권간의 경쟁이라는 상황이었

다. 이슬람주의가 부상하는 상황에서 중앙권력은 주민의 통제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다. 정권과 당시 튀니지의 대표적인 이슬람세력이었던 '엔 나흐다(En Nahda)' 간의 관계는 1987년 벤 알리 집권 후 2년 정도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관계가 진행된 이후 1989년 총선과 지방선거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다. 1989년 의회선거에서 엔 나흐다가 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정권과 이들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던 것이다. 1991년 엔 나흐다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중심으로 반정부운동을 전개하였고 정권은 강력한 탄압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당시 정부군과 이슬람반군 간의 내전을 겪고 있던 알제리의 상황에 빗대어 튀니지 이슬람주의자들을 악마화하였다.

엔 나흐다와의 갈등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국가는 빈곤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고 '빈민지역 주거조건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는 등 국민의 이반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즉 사회정책을 통해 정권은 경제개방 정책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주민위원회 역시 경제개방으로 상황이 열악해진 국민들이 이슬람주의에 가담하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하였다. 제도적인 면에서 위원회의 창설방안이 빈민지역 주거개선 정책과 함께 동일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공표된 점이 이러한 연관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주민의 참여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대대적인 홍보는 아직 튀니지 국민은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또 다른 담론을 동반한 것이었다. 따라서 위원회의 목표는 주민들이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습득하게 하는 것이었고 시정에의 주민 참여 역시 당분간은 시정을 보조적인 위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위원회의 역할은 또한 실제로는 환경미화나 공민교육과 같은 일부 영역에 한정된 것이었다. 제도적인 면에서도 위원회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고 고유의 재정적인 기반도 갖추지 못하였다. 위원회는 중앙권력에 종속된 조직이었던 것이다. 위원회는 '참여', '시민'과 같은 수사를 통해 튀니지 사회의 민주주의의 결핍을 은폐하기 위한 정치

였다고 볼 수 있다(Berry-Chikhaoui 2011, 30-39).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민주화와 자유화는 상호 밀접히 연관된 개념이다. 그러나 아랍 정치에 대한 논의에서 이 둘의 차이를 중시해야 한다. 역사는 민주주의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며 상당히 성숙된 사회의 경우에도 반동의 과정이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비단 고유의 한계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는 비서구사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다.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서구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나 시장의 동반자로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민주주의는 1세기 이상의 혁명, 아래로부터의 투쟁의 산물이었다.[4] 게다가 민주주의 역시 상당 기간 동안 소수에 국한된 것이었다. 로쉬르도(Dominico Losurdo)가 '우수한 종들의 민주주의(Herrenvolk democracy)'라고 지칭하듯이 19세기 민주주의는 계급, 성, 인종의 기준에 따라 노동자, 여성, 원주민이 배제된 유산계급에 속한 백인 남성의 민주주의였다. 20세기에 본격화된 자유주의는 바로 이 부상하는 부르주아지와 쇠퇴하는 귀족계급간의 경쟁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두려워하고 증오했다. 부르주아지와 귀족의 이념이었던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를 무정부주의, 군중의 지배

4) 홉스봄의 19세기 유럽 해석에 대한 베일리와 오스터함멜의 비판을 보자. 이들에 따르면 홉스봄은 산업혁명과 프랑스대혁명이라는 두 개의 혁명으로 경제적, 정치적 근대화를 설명하였는데 당시 유럽의 상황은 이러한 해석에 잘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9세기 유럽의 경우 영국, 벨기에 정도만 산업화가 진전되었고 나머지 유럽 사회, 그리고 미국은 1880년대 이후에야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19세기 유럽은 여전히 농촌사회였던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19세기에 부르주아 국가는 없었다. 아직 근대적인 정치제도의 실험기였고 여전히 귀족이 유럽사회를 대표하는 엘리트였다. 부르주아지가 부상했지만 귀족계급과 경쟁하는 양상이었고 귀족과 구체제 역시 사회변화에 적응하면서 잘 버티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부르주아지'라는 표현이 의미했던 것은 자본주의적 기업가 집단이라기보다 '인정받을 만한 사람', '장갑을 끼고 있는 사람' 정도였다. 모든 자유업 종사자가 부르주아였던 것이다(Bayly et Osterhammel 2006, 14-15). 유사한 입장에서 아르노 메이어 역시 19세기를 '구체제의 지속'의 시대로 규정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부르주아지가 이미 지배적인 계급이었지만 부르주아지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은 귀족계급에 종속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Mayer 1983).

로 간주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르봉(Gustave Le Bon)은 민주주의를 '군중의 시대'로 표현하였고 문명의 해체를 전망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이행기 아랍사회의 통합기제로 작용한 '형식적' 민주주의는 9·11테러 이후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이 시기에 제한적이나마 아랍 민주주의에 이러한 진전이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따른 것이었다. 예를 들어 2005년 1월 이라크에서 총선이 실시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데에는 2004년 1월 이라크 시아파의 최고지도자 알리 시스타니의 호소에 따라 큰 규모로 전개된 미 점령세력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운동의 산물이었다. 시리아군을 몰아낸 2005년 레바논의 민중항쟁 역시 미국의 개입과는 무관한 것으로 레바논 안정과 재건의 희망이었던 하리리 총리의 사망에 따른 것이었다. 시민사회의 성장도 두드러졌다. 시리아의 경우 2002년 555개(1962년 596개)에 그쳤던 민간단체의 수가 2010년 1,485개로 늘어났다. 이집트에는 20만 개가 넘는 NGO가 있으며 튀니지에는 5,700개, 요르단에는 3,500개가 있다(Bozarslan 2011, 58). 1980년대 말 대표적인 '민간단체의 폭발'을 경험했던 알제리에는 1989년 수천개에서 1994년 36,000개, 2000대 말에는 57,000개로 늘어났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활성화는 지하에서 활동했던 이슬람주의자들에게 합법적인 공간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위로부터의 시민사회 활성화는 중동에서 시민사회가 지닌 한계를 함축하고 있으며 외부세계가 중동의 시민사회에 대한, 민간단체에 입각한 대안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버려야 함을 의미한다.[5] 민간단체들은 의료, 교육 분야에서 국가의 수고를 덜어

---

5) 아랍 정권들은 '개혁'을 자신들의 담론에 포함시킴으로써 개혁세력임을 자치하고 또한 '변화'를 통해 새로운 지배방식을 창출했다(Boltanski 2009, 183). 중동 사례는 민주주의, 민주화, 개방, 개혁 등의 담론이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통치의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안전기제와 결합된 이 개혁 담론의 장악은 실질적인 경제적 양보를 동반한 서구사회의 헤게모니

주고 있으며, 심지어 기초생필품 분배에도 참여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민간단체의 활동을 근거로 자선활동이 빈곤 등 사회의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고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자신은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인권단체 등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세력들의 활동은 용인하지 않으며 이란, 시리아, 튀니지에서처럼 이들을 외부의 사주를 받아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내부의 적으로 홍보한다.

정당이나 선거와 같은 정치제도 역시 위에서 언급한 권위주의 갱신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측면이 강하다. 정당들의 위상을 보면 허울뿐인 경우가 많고 국가기구로 변질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적인 활동이 금지된다. 선거 역시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보장되지 않은 '정치없는 선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자유롭든 아니든 정권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는 경우초차 선거의 실질적인 정치적 기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선거는 자유롭지만 선거로 구성되는 의회의 역할이 미미하며 정권교체에 대한 압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로코 왕실처럼 후견세력을 통해 독립당(Istiqlal)과 같은 정당이나 의원 개인을 통해 의회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 실제 지금까지 레바논의 경우를 제외하면 선거를 통해 실질적인 정권교체가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중동에서 선거는 불확실성을 지닌 위험요소가 아니다. 철저히 관리되는 중동의 선거는 정반대로 권력이 대중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며 정권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이 의례적인 행위는 권력과 사회의 안정적인 관계가 검증되는 기회로서 선거를 대가로 국민은 정권

지배와도 다른 중동 권위주의 정권의 지배방식인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사회에 대한 정권의 관용적인 태도가 이러한 위로부터의 개방과 '변화'의 대표적인 방식이다. 물론 이때 모든 시민사회 세력이 관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주로 국가를 대신해 현장에서 복지를 담당하는 자선단체, 복지단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에 대한 극단적인 저항을 포기하는 의미를 가진다. 대부분의 경우에 나타나는 정권의 압승은 지배자에 대한 행정관료들의 충성, 그리고 선거관리 능력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권력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사회는 이 압도적인 권력을 인정하고 굴복하는 것이다. 선거는 현상유지와 더불어 정치계급의 재구성이라는 변화를 동반하기도 한다. 선거는 정치세력에 대한 포섭의 시간이며 대다수의 정치계급이 재생산되는 가운데 일부의 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물론 핵심세력은 바뀌지 않으면서 시민사회 세력 등 외부세력의 포섭이 진행된다. 이 과정은 정치적 반대파의 급진성이 약화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집권세력 내부의 인물 변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3) 아래로부터의 민주화

타리크 알리에 따르면 이번 아랍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아랍 역사상 두 번째의 거대한 민중 봉기였다. 첫 번째는 20세기 초반 식민지배세력을 겨냥해 전개되었던 저항운동이었고 이번 두 번째 봉기는 대부분의 아랍국가들에서 유지되고 있는 독재자들에 대항한 운동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민중봉기는 무엇보다도 경제위기로 인해 야기되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기집권한 권위주의 정권을 몰아내려 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사회전반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등 기존 정권이 무너진 지역의 경우 정치구도는 자유주의 세력, 군, 보수 세력간의 경합이다. 보수 세력은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이나 튀니지의 엔 나다와 같은 정치적 이슬람 세력에 의해 대표되고 있는 양상이며 소위 '시민사회' 세력이나 전통적인 야당 등으로 구성된 자유주의 세력은 보수 세력에 비해 민중의 요구를 결집할 역량과 통일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Ali 2011).

할리디 역시 아랍에 존재해 온 저항의 전통을 언급함으로써 이번 아

랍 민중의 봉기가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투쟁이 최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한편으로는 이번 저항운동이 결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과거의 투쟁의 연장선상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여러 번의 반제국주의 투쟁이나 반독재투쟁이 번번히 좌초했고 따라서 이번 혁명의 전망 역시 쉽게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 이후 아랍세계의 역사는 권력과 기존 사회체제에 대한 수많은 민중의 저항운동으로 점철되어 있다. 1798년 나폴레옹의 이집트 정벌에 대항한 카이로 시민들의 봉기는 1800년 일시적이나마 카이로를 해방시켰다. 1882년에도 이집트 민중은 영국 등 외세에 대항해 봉기했고 1919년과 1952년에는 자국을 지배하고 있던 영국 식민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혁명이 일어났다. 1925~26년에 시리아에서는 프랑스 식민세력에 대항한 민중의 봉기가 발생했고 1911년에 시작되어 20년 이상 지속된 리비아인들의 대 이탈리아투쟁, 1920년 이라크혁명, 1925~26년 모로코혁명, 1936~39년 팔레스타인 혁명 등 반제투쟁이 이어졌다. 식민지 시대 민중의 저항에 대해 식민 지배세력은 잔혹한 탄압으로 맞섰다. 1911년 리비아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습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고 역시 최초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가스공격이 자행된 것도 1920년 이라크에서였다(Khalidi 2011).

두 번째 아랍세계 차원의 저항운동은 탈식민화 이후 전개되었다. 독립을 얻었지만 자유도 기대했던 생활상의 진보도 주어지지 않았다. 외세의 정치적, 경제적 독점은 극소수 지배세력의 독점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며 그렇다고 외세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석유 역시 국가발전이나 민중의 삶을 개선시키기보다 지배세력 및 이들과 연계된 외부세계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배경으로 아랍민족주의운동 등 기존질서를 바꾸려는 저항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시기 저항운동을 대표하는 나세르혁명은 농촌지역의 지주들과 도시지역에서 과거 식민정권과

의 연계로 부를 획득했던 신흥 부르주아지와 같은 구 지배계급에 대한 공격을 의미했다. 집권 후 나세르는 교육 및 의료분야의 체계를 정비하고 고등교육을 대중화했으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의 수를 대폭 늘렸다. 1962년에는 법을 통해 모든 대졸자에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보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빈곤문제가 완화되었고 계층상승의 통로도 확대되었다. 이런 점에서 나세르 혁명은 사회혁명을 동반한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 정권 자신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다시 나세르 정권의 예를 들어보면 위에서 언급한 진보는 일당독재, 노조의 어용화, 경찰기구의 강화 등 매우 권위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결과는 사회 전반에 만연된 부패였다. 또한 나세르 정권이 추진한 농업개혁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았고 농촌의 자본주의화가 심화되었다. 대다수의 농민은 토지가 없었던 것이다. 도시 지역에서는 기업가와 소상인들이 관료들과 연계해 부당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했다. 나세르 정권의 권위주의, 그리고 이 시대에 형성된 농촌과 도시의 '새로운' 지배계급에 대한 불만은 급진적인 사회운동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1968년 사회운동과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성격의 운동이 노동자, 농민, 급진적인 지식인 등에 의해 시도된 것이다. 노쇠해진 나세르 정권은 이러한 민중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웠고 나세르는 1970년 9월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된다. 권좌를 계승한 사다트는 민중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친미노선과 경제개방과 같이 나세르 시대와 상반된 방향의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 이렇게 나세르 혁명과 나세르 집권 말기 급진적인 사회운동으로 이어진 '혁명의 시대'는 가고 나세르 시대부터 형성되어 온 '새로운 계급'이 지배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Gresh 2010).

그리고 오랜 공백을 거쳐 2011년 '제3의 저항운동'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민족주의 시대와 최근의 민주화 시대 사이를 단순한 공백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시기가 아랍국가들의 전반적인 침체기

였고 정치권력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불평등이 심화된 시기였기 때문에 정권의 강력한 통제 속에서도 간헐적으로 저항의 시도가 있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작은 '아랍의 봄'들이 생겨났다. '빵 폭동', '베르베르의 봄', '다마스의 봄', '아랍의 봄' 등이 그 사례이다. 먼저 1980년대 일련의 자연발생적인 폭동[6]이 일어났고 이때에도 저항운동은 튀니지, 이집트, 알제리 등 2011년 '아랍의 봄'의 진원지에서 발생했다. 이는 역사적으로 이 국가들이 아랍세계에서는 근대화, 산업화가 일찍이, 그리고 심도있게 진행된 지역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튀니지에서는 1983년과 1984년에 걸쳐 소위 '빵 폭동'이 튀니지 남부지역과 수도 튀니지에서 발생한다. 이 폭동은 독립 이후 튀니지 경제성장의 수혜를 받지 못했던 계층이 가지고 있던 불만의 표현이었고 독립 튀니지를 이끌었던 부르기바 정권 말기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증폭된 사건이었다. 1986년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마찬가지로 IMF의 영향력하에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주의 없는

6) 정치체제 형성에 미친 이슬람과 기독교의 역할을 비교한 책에서 바디는 이슬람 세계에서는 복종과 반란 이외의 대안이 존재할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 그에 따르면 종합적으로 볼 때 이슬람세계의 정치문화는 '폭동' 모델로 특징지을 수 있다(Badie 1986). 바디의 문화주의적 해석이 과도하기는 해도 아랍세계는 조직적인 사회운동이 미약한 가운데 다양한 자연발생적인 집합행동이 대중의 정치적 수단으로 기능하였던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베난니 슈라이비와 필리얼이 소개한 아랍사회에서 민중의 저항의 양상은 이 지역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 직장에서 주어진 임무를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수행한다; ⓑ 의복, 음악, 술 등 문화생활에서 경직되고 억압적인 지배문화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선택을 한다. 이슬람주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이 여성의 머릿수건, 남성의 자르지 않은 턱수염, 흰 아랍식 드레스를 채택한다거나 저항을 상징하는 특정 모스크를 다닌다거나 하는 것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 수피 교단과 같은 국가에서 벗어난 종교공동체 창설과 같이 세속 권력을 부정하고 초월적인 세계에 몰두하는 행위로 망명과 같이 현 세계로부터 이탈(exit)하는 것이다; ⓓ 재물을 불법으로 탈취하는 행위로 산유국의 경우 소수가 석유 수입을 독점하는 상황에 대한 반발로 석유를 빼돌리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 태업, 약탈, 테러, 암살 등 범죄 행위를 한다; ⓖ 적어도 아랍세계의 경우 선거에서 기권하는 행위 역시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정치에 대한 저항의 측면이 강하다. 특히 단일 후보가 나선다거나 부정선거가 예상되는 선거에서의 기권은 정치적 저항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Bennani-Chraïbi et Fillieule 2003, 58-59).

상황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은 빈부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모로코에서도 유사한 양상이 전개되었다. 1981년 6월 기초생필품 가격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발생하고 카사블랑카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1984년 1월에는 '빵 폭동'이 일어나 마라케슈를 비롯한 북부지역으로 확산된다. 당시 시위로 수백명이 목숨을 잃고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대거 투옥된다. 그보다 조금 앞서 알제리에서는 1980년 '베르베르의 봄'이라는 이름의 저항운동이 발생한다. 아랍인의 이주 이전 북아프리카의 주요 종족이었고 지금도 다수를 이루는 베르베르인들의 중심 지역 카빌리 전역에서 베르베르 문화에 대한 정부의 공식 인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북아프리카 등 아랍세계 반정부운동의 중심에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있었다. 튀니지에서는 1987년 벤 알리의 집권 이후 이슬람주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전개된다. 1991년 주요 이슬람 정당인 '엔 나흐다'에 대한 탄압이 전개되어 조직원들이 대거 투옥되거나 프랑스 등지로 망명하게 된다. 알제리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의 정치적 부상은 보다 극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1986년 11월 세티프와 콘스탄틴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발발하였고 1988년 10월에는 수도 알제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발생해 비공식 추산 6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계엄령이 내려지고 12월에 대통령에 재선된 벤제디드가 정치 및 경제 분야의 개혁을 약속하게 된다. 그 일환으로 1989년 2월 23일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다당제를 허용하는 새로운 헌법이 통과된다. 2월 18일 마다니와 벨하지가 이끄는 이슬람구국전선(FIS)이 창설되어 9월 법적인 인정을 받게 되며 1990년 6월 12일 치러진 최초의 자유로운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압승을 거두게 된다.[7]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한 정권

7) 1989년 이슬람구국전선(FIS)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사실은 이슬람 세력이 승리한 튀니지와 이집트의 최근 선거 결과가 아랍세계에 처음 나타난 현상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과 군은 지방선거 2차 투표를 취소하고 1992년 2월 9일 계엄령을 선포한다. 1993년 2월 7일 계엄령이 무제한적으로 연장되고 2000년대 초까지 정부군과 이슬람 반군 간의 내전을 통해 20만 명이 사망하게 된다(Leveau 1995).

2000년대가 되면 전통적으로 반정부운동이 약했던 중동 산유국을 포함해 전 아랍세계에서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중들의 저항운동이 나타난다. 권위주의, 군주제, 공화제 등 정치체제의 형태는 달라도 공히 정권은 권력을 독점해왔고 민중은 정치적, 경제적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원했다. 시리아가 출발점이 되었다. 전 대통령 하페즈 알 아사드의 사망과 그의 아들 바샤르의 권력승계 직후 일어났던 "다마스의 봄"이 그것이다. 2000년 6월 13일 20년간 권좌에 있었던 하페즈 알 아사드의 사망에 직면해 시민사회, 정권에 비판적인 정치세력, 심지어 일부 바스당 인사들까지 시리아가 민주화의 길에 접어들 것이라고 믿었다. 바샤르가 젊고 덜 권위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까이드(qaïd)'라고 불리는 사회 각 분야 지도자들에 의해 지도자로 지명되었고 시리아 사회를 현대화하고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는 점 때문에 국민들은 새로운 정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바샤르는 "시리아적 예외성"을 거론하며 일반적인 민주주의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었지만 여론을 존중한다는 그의 입장이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되는데 일조하였다. 알제리에서도 2001년 봄 카빌리 지역에서 1980년대 '베르베르의 봄'의 주역들과 청년들이 결합해 시위가 이어졌다. 2000년대 중반이 되면 저항의 분위기가 아랍 각지로 확산된다.

2004년 11월 11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었던 아라파트의 사망과 2005년 1월 9일 선거를 통한 마흐무드 압바스의 권력 승계, 2005년

밖에도 2000년대 초반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에서의 이슬람주의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한 전례가 있었다.

1월 30일 선거에서 이라크인들의 다수가 참여한 사건, 2005년 2월 14일 라피크 하리리 레바논 총리 암살과 그에 뒤이어 암살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시리아의 레바논으로부터의 군 철수 및 시리아 내정 간섭 종식을 요구하며 전개된 대대적인 시위, 2005년 2~4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지방선거 실시, 2005년 이집트에서 2월 무바라크 대통령이 여론의 압박 속에 대통령 선거에 다수의 후보자가 나올 수 있게 법을 개정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사회전반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의 전개.[8] 이와 같은 2005년을 전후한 일련의 현상들을 당시 외부세계에서는 '아랍의 봄'이라고 불렀다. 외부세계는 아랍세계에 민주화가 진전된 것으로 간주하였고 그 공은 '중동민주화'를 명분으로 아랍세계에 개입해왔던 부시행정부에 돌려졌다.

이집트, 알제리 등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시민사회' 현상 역시 2011년 '아랍의 봄'을 잉태한 산파 역할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아랍의 사회운동에 대한 논의는 민중의 자생적인 저항운동이나 이슬람주의에 치중된 것이었다. 이슬람주의 이외의 세력에 의한 집합행동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것이다. 1990년대부터 제한된 정치개방의 산물로 아랍세계에 등장한 '시민사회'도 그중 하나이다. 하와가는 '시민사회'라고 불리게 된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과 집합행동이 부상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기존의 반정부적 정치세력이나 노동운동에 의한 반정부운동이 약화되었고, 둘째, 경험을 통해 사회운동 세력이 이집트 정권이 민주화를 추진하게 하기 위한 압력수단으로서 국제사회를 동원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셋째, 정권이 보다 비가시적이고 효과적인 반대파 통제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집트의 사례를 보면 2000년대 이후 '시민사회'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세력은 나세르 시대 좌파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한 세대, 사다트 집권 초기 위로부

8) 이전까지 이집트의 대통령 선거는 의회가 지명한 단일 후보에 대해 국민이 찬반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터 시도된 민주화 기간을 전후해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 특히 1968~1972년 활발히 전개되었던 학생운동의 주역들이었다. 이들은 학생운동 참여 이후 이집트 사회에서 권력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새로운 좌파', '국민의 세력', '민주주의세력', '권리와 자유의 운동가' 등으로 불리어진 이들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민주화 또는 정치개방의 주역으로 칭송되었는가 하면 이집트 정치권의 한 부분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하였다. 기성체제가 민주주의를 표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성체제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비난받기도 한 것이다(El Khawaga 2003, 271-273). 1990년대에 등장한 한국의 시민운동과 유사하게 이집트에서 민간단체에 참여한 과거의 좌파 세력들은 민간단체를 단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 정치적 변혁의 전망을 세우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동시대 이슬람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반사회(counter society)' 구축 시도와 일부분 유사한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형성이 시도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과거 아랍 근현대사에 나타났던 민중의 봉기와 최근 '아랍의 봄'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지적되었다. 첫째, 최근 봉기는 과거 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 시대에 아랍세계에서 일어난 봉기나 1987~1991년 팔레스타인에서 발생한 인티파다 등의 사례를 보면 '비폭력 노선'이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닌 것이다. 이번 아랍 민중봉기의 새로운 점으로 언급되는 또 다른 점은 '민주주의'라는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것이다. 민주적인 정권 수립, 그리고 이를 상징하는 헌법개정이 핵심적인 목표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역사적으로 볼 때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미 1870년대 말 당시 각각 프랑스와 영국의 점령하에 있었던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근대적인 헌법 제정을 위한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후에도 '제헌운동'은 오스만 제국이나 제국의 해체로 생겨난 근대국가들에서 저

항운동의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였다. 그 결과 이미 전간기부터 아랍 국가들은 입헌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물론 이 체제는 외세와 아랍의 권위주의 정권, 그리고 국민의 낮은 교육 및 정치의식 수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최근 미국의 경우만이 아니라 식민지 시대부터 강대국은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데 장애가 되는 민주주의가 아랍세계에 정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던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적 요구 역시 쉽게 전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사미 나이르(Naïr 2011)가 지적하듯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2011년 '아랍의 봄'의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지위하락의 위협에 직면한 중산층의 자각과 실천, 과잉착취되고 주변화되고 있는 민중계급의 반역,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교육받은 청년들의 저항. 이는 장기간 지속된 권위주의적이고 과두제적인 지배체제, 그리고 아랍 국가들이 공히 추진했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정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연관성을 가진다. 특히 많은 아랍국가들이 2008년 9월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았다.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이 격감하였고 유럽의 아랍계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고국으로의 송금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국가경제에서 이 해외송금에의 의존도가 높은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이로 인한 타격이 심각했다. 유럽 등 중심부 세계의 불황은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관광산업의 비중이 큰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요르단 등이 타격을 받았다. 이와 함께 IMF는 특히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에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재정축소, 공무원 감축 등의 조치를 강요하게 된다. 구조조정의 결과로 중산층의 상황이 악화되어 빈곤화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번 '아랍의 봄'에 참가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리고 일상적으로 빈곤과 불평등, 부패와 폭력,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경험해왔다. 이 때문에 국가에 따른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랍국가들은 동일한 문제, 동일한 분노, 동일한 주체의 양상을 보여왔다. 급진적인 양상으로 전개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점을 확인해 보자.

튀니지의 경우 혁명운동의 배경에는 집권 당시 민주주의의 신장을 약속했던 벤 알리 정권이 권위주의로 회귀한 것과 튀니지식 개방경제 모델이 낳은 부패, 지역불균형, 실업, 특히 고학력자들의 실업과 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이집트 역시 무바라크의 장기집권에 대한 반감과 함께 국제사회가 높게 평가한 시장개방과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률이 불평등과 실업 현상의 심화를 동반한 것이었다는 점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만이 폭발한 배경이 되었다. 카다피의 리비아는 2000년대 들어 석유 등 광물자원을 미국과 유럽의 기업들에게 개방하는 등 외국자본에 우호적인 정책을 펴게 된다. 그 결과 민영화, 복지축소, 실업률 증가와 같은 양상이 나타났고 전통적으로 정권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동부지역에서 반정부운동이 시작되었다. 예멘의 경우에는 산나(Sanna) 등 여러 도시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발생하게 된다. 시위대는 1978년 이후 집권하고 있는 살레 대통령의 퇴진과 선거 실시, 집권정당의 권력독점, 부패와 생활조건 향상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었다. 걸프만 산유국 중 아랍의 봄 현상이 나타난 바레인, 사우디, 오만은 최근 복지의 축소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수준 하락이 가장 심각했고 따라서 국민의 불만도 컸던 나라들이었다. 오만의 경우 시위대가 요구했던 것은 정권 퇴진이나 정치체제 변화가 아니라 실업과 저임금, 부패와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개혁조치였다. 사우디에서도 청년실업문제 등 경제문제가 시위의 계기로 작용했다. 비록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주거, 실업, 임금과 관련된 1,300억 달러의 재정지출을 대책으로 제시한 점은 이번 민주화운동의 원인과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스키(Haski 2011)가 제시한 유형화를 통해 '아랍의 봄'의 다양한 양상을 간략히 살펴보자. 그는 성공한 혁명, 폭력적인 혁명, 폭력적으로 진압된 민중의 봉기, 주저하는 국가들, 표면적으로는 조용하지만 갈등이

분출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국가와 같이 5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다.

1) **성공한 혁명:** 튀니지가 최초로 2011년 1월 14일 독재자가 물러난 국가가 되었고 곧 이어 이집트가 그 뒤를 따랐다.
2) **폭력적 혁명:** 리비아는 극단적인 폭력의 양상을 띠었다. 튀니지와 이집트의 영향으로 국민 일부가 시도한 저항운동이 카다피 정권의 강력한 탄압에 직면했고 리비아 동부지역은 반군의 수중에 들어간다. 유럽과 미국은 개입의 유혹을 받게 되고 결국 프랑스가 중심이 된 나토군의 개입이 시작된다. 리비아의 양상은 이후 시리아에서도 장기적인 내전이라는 형태로 재현된다.
3) **정부에 의한 봉기의 무력진압:** 바레인과 예멘에서는 민중들의 시위가 수일 계속되면서 정권의 무력진압이 나타났다. 수십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리비아와 같은 내전으로 전화하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예멘에서는 결국 시위대가 목표로 한 살레의 퇴진이 이루어지게 된다.
4) **주저하는 국가:** 모로코와 같이 튀니지와 이집트의 영향이 크지 않았던 사례도 있다. 이 나라에서는 2011년 2월 20일 처음으로 시위가 대규모로 나타났고 입헌군주제를 요구하며 수 주일간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국왕이 국민이 요구한 헌법개정을 받아들이면서 주도권을 장악한다. 모로코와 함께 북아프리카에서 민중의 동원이 미약했던 지역이 바로 알제리이다. 그런데 그 이유는 모로코와 달랐다. 한편으로는 국가가 시위에 매우 강력하게 대응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위대의 세력이 약했다. 이러한 양상은 무엇보다도 알제리가 잔혹한 내전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국민은 더 이상 지난 내전과 같은 분열과 폭력의 재발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5) **표면적으로는 조용하지만 갈등이 심각한 국가:** 일부 국가들은

'아랍의 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요르단 등이 그 사례이다. 사우디의 경우를 보면 극도로 보수적이고 종교적인 군주제를 가진 이 나라는 반정부시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사우디에서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시위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지만 동부 시아파 일부 지역과 제다의 지식인그룹 정도에서만 시위나 정권비판이 나타났다. 왕실은 주요 반정부인사들을 검거하고 집회를 막는 등 강제력을 통한 대응과 함께 물질적인 양보조치도 사용했다. 질병 치료를 위한 오랜 외유를 마치고 2011년 2월 말에 귀국한 압달라 국왕은 공무원들에게 15%의 특별수당을 지급한다거나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주거지원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민의 요구를 직접 수용하기보다는 돈으로 무마시키는 걸프만 산유국의 전형적인 대응방식이다.

4. 민주주의의 아랍적 의미

이 절에서는 위의 논의를 토대로 아랍에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론과 실천들의 특징을 도출하고 민주주의가 지닌 위상을 아랍세계가 직면한 과제와 연관해 살펴본다. 먼저 아랍세계의 민주주의 논의에는 서구적인 이념과 제도의 수용과 이슬람이라는 전통적인 가치의 유지라는 두 가지 측면 간의 갈등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한편으로는 전자와 후자 중 어느 것을 중시하는가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양자의 관계가 모순적인지 공존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근대 초 이슬람개혁주의자들이나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이슬람주의자들의 경우 민주주의 등 서구적 가치에 대한 입장이 원칙적

인 거부, 화해의 시도, 실용주의적인 접근 등 다양한 면모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이슬람주의가 지닌 양면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도 있다. 즉 일반적으로 서구적이고 세속적인 이념의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슬람주의가 서구의 오리엔트 인식으로서의 오리엔탈리즘의 아랍적 형태, 달리 말해 뒤집어진 오리엔탈리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주화의 역사에 있어서는 우선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와 위로부터의 민주화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으며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가마다 다양한 양상을 나타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유사한 전개과정을 거쳐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전까지 아랍세계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독립 후 국가를 이끌어 온 지도자의 사망 또는 퇴진 이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공백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초대 정권과 달리 동의나 카리스마보다 강제력에 의존하는 정치가 나타난다. 그러나 동시에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된 경제개방을 위해 요구되는 정치개방이 시도되기도 한다. 부분적으로 개방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반정부운동이 격해지며 시민사회의 역량이 강화된다. 정권은 강력한 탄압과 정치적 장의 개방이라는 이중적인 수단으로 장기집권에 성공한다. 그러나 정권의 지배도구로 도입된 형식적 민주화가 '아랍의 봄'과 같은 실질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중운동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2011년의 민주화운동 역시 이전의 것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이나마 활용가능한 온라인, 오프라인의 공간을 이용해 정치개혁을 요구한 것이고 이에 대해 정권은 탄압으로 대응하였다. 그러나 이번 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최근 더욱 심각해진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광범위한 계층의 자연발생적인 행동이라는 측면이 강했다.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와 같이 혁명적인 상황이 전개된 국가의 경우 정권의 수장이 사라진 후의 국면에서 구체제로의 복귀를 시도하는 '테르미도르' 현상이 나타나

고 사회의 급진적 변화에 대한 저항, 즉 '반혁명(counter-revolution)' 세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혁명 이후의 국면을 주도하는 것은 혁명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세력이 아니라 이슬람주의 세력이나 군부 등 혁명과정에서 소극적인 역할을 했던 세력들이다.

아랍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전쟁 등 폭력적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 권위주의 체제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폭력의 종식과 평화체제의 수립, 아랍권의 경제적 왜곡 및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권위주의[9]의 극복, 그 중에서도 비대한 '강제력에 의한 지배'의 극복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10] 이에 대한 다양한

---

9) 사미르 아이타(Aita 2011)는 2011년 아랍에서 일어난 저항운동의 원인으로 국가의 약화, 경제 자유화, 빈곤화를 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아랍의 봄'의 배경을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갈망에서만 찾아서는 안 되며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는 아랍세계에서 군주제나 공화제를 막론하고 권위주의적인 정치문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역할은 약화되고 권력이 제도로서의 국가와 정치를 압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이때 그가 말하는 권력의 강화란 집권정당 내부에 자리잡은 가신그룹들, 그리고 비밀경찰 등 비공식적인 치안세력이 극도로 비대해졌고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아랍세계가 당면한 과제가 무엇보다도 국가의 회복, 법치국가의 건설임을 보여준다. 영원한 '권력'이 국가를 장악하는 체제가 아니라 역으로 권력은 일시적으로만 부여되고 제도에 종속되는 국가, 시민과 노동자들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는 국가의 건설이 요구되는 것이다.

10) 아랍세계가 풀어야 할 과제와 관련해 2004년 3월 12~14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린 컨퍼런스 "아랍세계에서의 개혁: 전망과 현황"은 아랍 '시민사회' 진영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자유주의 성향이 강한 참가자들은 아랍세계의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개혁의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개혁은 아랍사회 자체에서 출발한 것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치개혁은 '진정한' 민주주의 건설이라는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이때 민주주의는 자유, 다원성, 인권, 권력분립, 의회주의, 자유선거, 정당체제 등 자유민주주의적 요소들로 인식되었다. 경제개혁에 관해서는 시장경제를 인정하면서 각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결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아랍의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는 성장률, 무역, 외자유치의 침체, 빈곤율의 상승,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이 강조되었다. 그간 시도되었던 경제개혁은 재정축소와 물가안정, 민영화, 규제완화를 통해 인플레를 억제하는 것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실업문제, 사회서비스 문제는 소홀히 여겨졌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일국적 과제 못지않게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이라크의 정치적 자립과 같은 지역적 과제가 강조되었다(http://www.bibalex.org/ARF/fr/document.html, '아랍개혁포럼(Forum de la réforme arabe)' 사이트).

해결방안이 시도되었고 본문에서 살펴본 위로부터의 경제적, 정치적 개방정책과 아래로부터의 저항운동이 대표적인 양상이었다. 아랍세계가 직면한 문제의 성격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는 핵심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아랍 민주화의 성패는 평화, 자주, 정의, 평등, 경제발전, 복지와 같이 기존 권위주의 정권들이 실패한 과제들에 대한 해결능력에 좌우될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 민주주의의 위상은 다른 비서구사회나 제3세계와 달리 사회운동과 이데올로기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지 못했다. 민주주의나 민주화 담론과 세력의 상대적인 위상의 원인으로 우리는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부르주아지나 노동계급의 발전이 미약하다거나 정권의 폭압적인 지배방식과 같은 보편적인 요인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아랍세계에서의 종교담론의 압도적 비중, 그리고 이와 연관된 것으로 '서구'와 같은 외부세계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서구적인 것, 서구와 연계된 것으로 평가되었던 점도 지적해야 할 것이다. 1세기 전의 이슬람개혁주의나 최근의 이슬람주의 담론 모두 아랍세계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진단과 대응을 표방했다. 폭력, 종속, 권위주의, 경제의 왜곡과 같은 표면상의 문제들의 근저에는 정체성 문제 등 역사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문제가 존재하며 그에 대한 해결책은 이슬람 원리를 사회에 관철시키는 것과 같은 종교적이고 총체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이슬람주의자들이 1980년대부터 시작해 '아랍의 봄'을 겪은 현재까지도 사회운동과 정당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아랍의 민주화운동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고 반혁명세력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는 아랍의 가장 비중 있는 보수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주의 세력의 정치적 부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혁명에 소극적이었던 이들이 혁명의 과실을 가져가고 있는 양상을 고려할 때 아랍혁명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아랍에서 민주

주의의 논의와 실천이 보이는 특수한 양상은 아직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위에서 우리는 아랍세계의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에서 이 지역의 역사적 맥락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담론과 실천의 측면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랍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했고 아랍세계에서 민주주의나 민주화운동이라고 간주할 만한 현상이 존재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랍에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론과 실천들의 특징을 보면 먼저 서구적인 이념과 제도의 수용과 이슬람이라는 전통적인 가치의 유지라는 두 가지 측면간의 갈등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민주화의 역사에 있어서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와 '위로부터의 민주화'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으며 진행되어 왔고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사망, 경제개방과 정치개방, 폭동과 같은 대중들의 저항운동, 강제력에 의한 장기집권,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한국과 비교해보면 아랍의 민주화운동 역시 좌파 정치세력이나 노동운동, 학생운동, 종교세력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종교세력의 비중이 한국에 비해 크고 반대로 노동운동이나 제도권 좌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 다르다. 사회운동과 이데올로기에서 민주주의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이어져 온 권위주의의 극복이 아랍세계가 정치적 저발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민주화운동은 아랍

의 사회운동과 대중의 정치적 실천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Aita, Samir. 2011. "Abattre le pouvoir pour libérer l'Etat." *Le monde diplomatique*. 2011년 4월호.

Al-Azmeh, Aziz. 1993. *Islams and Modernities*(2nd. ed.). London: Verso.

Ali, Tariq. 2011. "Nous assistons à la seconde vague historique du réveil arabe." *Marianne 2*. 2001년 3월호.

Badie, Bertrand. 1986. *Les deux Etats. Pouvoir et société en Occident et en terre de l'Islam*. Paris: Fayard.

Bayly, Christopher, et Jürgen Osterhammel. 2006. *La naissance du monde moderne(1780-1914)*. Paris: Les Editions de l'Atelier/Le Monde diplomatique.

Bennani-Chraïbi, Mounia, et Olivier Fillieule(dir.). 2003. *Résistances et protestations dans les sociétés musulmanes*. Paris: Presses de Sciences Po.

Bergesen, Albert J.(ed.). 2007. *The Sayyid Qutb Reader: Selected Writings on Politics, Religion, and Societ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Berry-Chikhaoui, Isabelle. 2011. "Les comités de quartier en Tunisie: une illusion démocratique." *Mouvements*. 2011년 여름호: 30-39.

Boltanski, Luc. 2009. *De la critique. Précis de sociologie de l'émancipation*. Paris: Gallimard.

Bozarslan, Hamit. 2011. *Sociologie politique du Moyen-Orient*. Paris: La découverte.

El Fadl, Abou. 2004. *Islam and the Challenge of Democr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El Khawaga, Dina. 2003. “La génération seventies en Egypte: La société civile comme répertoires d’action alternatifs.” in Mounia et Fillieule(dir.). *Résistances et protestations dans les sociétés musulmanes*. Paris: Presses de Sciences Po: 271-292.

Esposito, John. 1985. *Islam and Politics*. Syracuse University Press.

Esposito, J., and J. Voll. 1996. *Islam and Democracy*. Oxford: Oxford University.

Ferrié, Jean-Noël. 2012. “La fin d’un modèle autoritaire”(pp.18-25). In La documentation française. *Questions internationales: Printemps arabe et démocratie*. 2012년 1~2월호.

Gallissot, René. 1987. *Maghreb, Algérie: classes et nation Tome 2*. Paris: Arcantère.

Gresh, Alain. 2010. “Dans l’Egypte de Nasser surgit une “nouvelle classe”.” *Le monde diplomatique*, 2010년 6월호.

_____. 2011. “Egypte-monde arabe, la troisième vague.” *Le monde diplomatique* (http://blog.mondediplo.net/2011-01-30-Egypte-monde-arabe-la-troisieme-vague) 2011/01/30.

Haski, Pierre. 2011. “Dans le monde arabe, une révolution aux multiples visages.” *Rue 89*(http://www.rue89.com/2011/03/13/dans-le-monde-arabe-une-revolution-aux-multiples-visages-194104) 2011/3/13.

Hourani, Albert. 1983. *Arabic Thought in the Liberal Age: 1798-1939*. Cambridge Univrsity Press.

Hussein, Mahmoud. 1969. *La lutte de classes en Egypte de 1945 à 1968*. Paris: Maspero.

Khalidi, Rashid. 2011. “Quelques remarques historiques pour comprendre les révolutions arabes de 2011.” (http://www.npa2009.org/content/quelques-remarques-historiques-pour-comprendre-les-r%C3%A9volutions-arabes-de-2011) 2011/04/28.

Kepel, Gilles. 1994. *The Revenge of God: The Resurgence of Islam, Christianity and Judaism in the Modern World*.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Laroui, Abdallah. 1987. *Islam et Modernité*. Paris: La découverte.

Leveau, Rémy(dir.). 1995. *L'Algérie dans la guerre*. Bruxelles: Editions Complexe.

Lewis, Bernard. 2001. *The Emergence of Modern Turkey*(3rd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Mandaville, Peter. 2007. *Global Political Islam*.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Mayer, Arno J. 1983. *La persistence de l'Ancien Régime: L'Europe de 1848 à la Grande Guerre*. Paris: Flammarion.

Milton-Edwards, Beverley. 2006. *Contemporary Politics in the Middle East*. Polity.

Naïr, Sami. 2011. "Révolutions arabes: Une nouvelle conscience commune." *Mémoire des luttes*(http://www.medelu.org/Revolutions-arabes-une-nouvelle) 2011/06/21.

Roy, Olivier. 1998. *The Failure of Political Islam*. Harvard University Press.

Said, Abdel Moghny. 1972. *Arab Socialism*. London: Blandford Press.

Zubaida, Sami. 1992. "Islam, the state and democracy: contrasting conceptions of society in Egypt." *Middle East Report-MERIP*. 1992년 11월~12월호, 통권 179호: 2-11.

투고: 2012.10.4　심사: 2012.10.10　확정: 2012.10.31